



**SK스퀘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SK스퀘어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ISO 37001을 획득하며 투자전문회사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SK스퀘어 본사에서 오경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왼쪽)이 정재현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스퀘어



**한국타이어, 교통사고 아이들 위해 치료비 지원**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타이어)가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들을 돕는다. 한국타이어는 16일 함림원에 성금 1485만4000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10월 25일 졸음운전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당한 함림원 아동 치료비로 사용된다. (왼쪽부터) 최비비안 함림원장, 조성국 한국타이어 제조담당 상무, 이훈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주한중국대사 중앙연구소 방문**

중국 인사들이 16일 경기도 용인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에 방문해 금호타이어 최신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왼쪽부터) 16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곡금생 중국 경제공사,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심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과 금호타이어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인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보직인사 △ 건설인증센터장 강성훈 △ 기술사업화실장 김중배

**부음**

- ▲ 윤현빈씨 별세, 윤다정(뉴스1 사회정책부 기자)·윤다영씨 부친상 =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 02-395-1024
- ▲ 왕윤수씨 별세, 왕종명(MBC 워싱턴 지국장)·왕종미(대구 전자공과 교사)씨 부친상, 이성용(애플하우스 인테리어 대표)씨 장인상, 윤희정(YA 미디어 대표)씨 시부상 = 17일 오전 4시 20분,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1일 오전, 장지 세종시 연서면 쌍유리 선영 ☎ 1599-4411
- ▲ 정덕영씨 별세, 정진원(충북도 보건복지국장)씨 부친상 = 17일 오전 6시 20분, 영동병원장례식장 2층 2호,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 0507-1472-4499
- ▲ 박인규씨 별세, 박세준(전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씨 부친상 = 17일 오전 4시, 광주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발인 19일 오전 7시, ☎ 062-227-4000
- ▲ 전병임씨 별세, 김승기(전 국민은행 부장)·김영순·김인기(전자신문인터넷 온라인편집국장)씨 모친상, 김종민(전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씨 장모상 = 16일 오후 10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 02-3410-6919

**현대차, 지속가능성 공유... 카타르서 특별 박물관 운영**

**도하 '피파 박물관' 개관식 세기의 골 캠페인 일환 조성**

현대자동차가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에 세번째 피파 박물관을 연다. 현대차는 16일(현지시간) 카타르 도아 알비다 공원에서 '피파 박물관'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파박물관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세기의 골' 캠페인 일환으로 조성됐다. '역사를 만든 골'이라는 주제로 562㎡ 공간에 본선 진출 32개국 유니폼과 역대 월드컵 트로피 등 다양한 소품을 전시한다.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세기의 골은 현대차가 2022 월드컵을 맞아 지난 4월부터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현대차는 이 캠페인을 통해 2022 월드컵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축구로 하나가 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스티븐 제라드를 주장으로 박지성 전 국가대표 선수 등이 참여한 '팀 센추리'가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왼쪽부터) 파스칼 추버필러 전 스위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잔루카 잠브로타 전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 선수, 디에고 포를란(Diego Forlan) 전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마르코 파조네 피파 박물관 장관, 김연수 현대차 인도아중동대권역 부사장, 박지성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 FIFA 박물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특히 현대차는 인류의 더 큰 목표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모두 연대하는 메시지를 위해 박물관 외관을 여러 골대가 결합한 모습으로 디자인했다. 해체시에도 폐기물을 발생하지 않는 흙 다짐 공법을 적용했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마

감재를 사용했다. 피파와 영국 건축사무소그림소, 독일 콘텐츠 회사 유니플랜과 협업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월드컵 기간 경기 중간 광고로 세기의 골 캠페인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스티븐 제라드 내레이션을 통해

계인이 연대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속가능성은 현대차와 FIFA가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라며 "축구는 스포츠가 가진 연대의 힘을 통해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피파 관계자는 "이번에 카타르에서 개관하는 피파 박물관은 2018 러시아 월드컵, 2019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 이어 현대차와 함께 세번째로 건축한 피파 박물관"이라며 "축구의 역사와 문화를 개척국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현대자동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전세계 7개사뿐인 FIFA의 파트너십 중 하나로 1999년 FIF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02년 한국/일본 월드컵부터 2022 월드컵까지 모든 월드컵을 후원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2022 한국에너지대상 개최 공조 핵심기술 국산화 등 공로**

LG전자 이재성 부사장이 17일 열린 '2022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 부사장은 외산에 의존하던 공조제품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국내 가전 산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효율 제품을 연구해 히트펌프 기술 성장과 인버터 기술 고도화도 이끌어냈다. 중소기업과 상생 및 고용 창출에



도 공헌했다는 평가다. LG전자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기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고효율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냉동공조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SK가스가 평택에 조성한 행복숲정원 /SK가스

**SK가스, 평택에 '행복숲정원' 기부**

지역사회와 상생, ESG경영 실천을 위한 SK가스가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한 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가스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908번지에 약 486㎡ 크기의 도시숲을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숲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숲은 '다양한 원형 공간속에서의 조화'라는 콘셉트로 평택시민과 평택을 찾는 방문객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행복숲정원 프로젝트는 SK가스의 ESG 마스터플랜 중 생태보호 및 도시숲 조성활동의 일환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커피찌꺼기 재활용한 화분키트 증정**

스타벅스, 다회용컵 활성화 위해 송도트리플 등 5곳서 시범 캠페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에서 배출되는커피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한 커피박 화분을 고객에게 제공했다. 스타벅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스타벅스 송도트리플 R점, 용인죽전역R점, 안양역R점, 더해운대R점, 광주월산DT점에서 커피박 화분키트를 증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스타벅스는 금번 시범 증정 캠페인 진행 후 다회용컵 활성화 캠페인을 위해 연중커피박 화분 증정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커피박 화분은 위 5개 시범 매장을 방문한 고객 중 개인컵으로 주문한 음료를 포함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스타벅스 푸드를 1만원 이상 구입하고 스타벅스 매장에 별도로 마련된 증정부스에서 파트너에게 영



스타벅스가 커피박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기념해 '커피박 화분키트' 증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수증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커피박 화분은 지난 7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았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는 재활용 방법이나 기술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폐기물이 안전하게 재활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스타벅스 커피박 화분 키트는 컵모양의 화분과 커피찌꺼기 배양토, 허브류 씨앗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기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솔루션 마련**

홈서비스와 업무제휴 충전 요금 합리적 산정 기아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돕는다. 기아는 공동주택 충전 솔루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홈서비스'와 업무제휴를 통해서다. 이 솔루션은 기아 전기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협의를 비롯해 현장 상담과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실무와 설치 운영

업무를 대행한다. 기아는 실무작업을 마치고 3kW 콘센트형이나 7kW 완속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는 신청자 사무실이나 희망 지역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용은 무료다. 충전 요금도 합리적으로 산정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기아 홈페이지나 'MyKia'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설치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